

10월 시중통화량 전년대비 7.1% ↑

한은, 10월중 통화 유동성 동향 “시중통화량 2392.1조... 추경 편성으로 지방정부 단기 예적금 늘어”

지난 10월 가계 등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2392조원으로 7%대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라 지방으로 교부되는 재원이 단기 저축성 예금으로 몰리면서 통화량 증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6년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10월 시중통화량(M2·광의통화)은 239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경장·원계열 기준) 증가했다. 전년 대비로는 0.3% 증가했다.

광의통화는 현금을 비롯해 즉시 유통화할 수 있는 2년 미만 정기에·적금 등 금융자산 등으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7%대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5월 2014년 7월(6.5%) 이후 1년10개월 만에 6%대로 내려앉았으나, 6월에 다시 7.1%로 올라섰다. 하지만 7월 6.9%로 내림세로 돌아선데 이어 8월 다시 7.2%를 나타낸 뒤 9월 다시 6.9%대로 내려갔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통화량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다 지난 4월부터 7% 안팎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10월에도 큰 변화없이 패턴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별로는 수시입출식 저축성



HDR 모니터 공개 LG전자가 14일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밝은 부분은 더욱 밝게 보여줘 생생한 화면을 만드는 HDR(High Dynamic Range) 모니터를 공개했다. 모델들이 HDR 모니터의 화질을 체험해보고 있다.

예금이 전월 대비 2조1317억원, 요구불예금이 3조3874억원 늘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7조5121억원 늘었다. 반면 머니마켓펀드(MMF)는 2조 7000원, 기타통화성금융상품은 2조 5000억원 감소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가 4조4000억

원, 기타부분이 5조1000억원 증가했고, 기타금융기관이 5000억원이 늘었다. 기업은 4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체별로 보면 기타

만 정기예적금과 요구불예금 상품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부분의 경우 10월은 부

SK텔레콤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대규모 자동 업그레이드

SK텔레콤의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NUGU)'가 14일 대규모 자동 업그레이드를 받으며 더욱 스마트한 기능을 선보인다.

이번 개편으로 누구에 T맵 교통정보, 위키백과 음성검색, 라디오, 어린이 특화 콘텐츠 등 신규 서비스가 추가됐다. 피자·치킨 배달, 날씨 안내 기능도 더욱 정교해졌다.

예를 들어 누구에 “집에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려? 언제 도착해?”라고 말하면 “(회사까지) 50분 걸립니다”, “오전 9시 도착 예정입니다” 등의 답을 들을 수 있다.

백과사전 검색도 강화돼 “위키에서 바라파사우루스”에 대해 찾아줘”라고 말하면 “바라파사우루스는 중생대 쥐라기 전기에 오늘날 인도 중부에서 서식한 사육보행하는 대형 초식공룡입니다”라는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뉴시스

전자금융사고 때 금융사 책임 강화 한다

금감원, 소비자에게 부당한 전자금융거래 약관 170개 시정 조치

해킹과 위·변조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때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등 156개사 170개 약관에서 불합리한 항목이 발견돼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에 기재된 금융회사의 면책조항이 포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 금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전면 점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접근매체 위·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송·처리과정, 해킹에 의한 사고를 전자금융사고로 규정하고 이용자의

고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부과한다.

점검 결과 일부 선불전자금융업체는 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근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손해까지 책임을 부담케 했다. PIN 등 본인 인증수단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식이다.

공인인증서와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도난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관에 명시한 전자금융업체도 있었다.

금융회사 면책 조항도 손질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 위·변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카드는 접근매체의 발급·관리 주체에 해당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제한했다.

전자지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대한 면책 조항과 전자금융사고의 종류에 해킹 사고 누락 등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들 조항이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담당(선인국장)은 “금융업권별로 문제점이 발견된 약관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자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리니지2 레볼루션’ 정식 서비스

넷마블게임즈 리니지2 IP 활용 모바일 MMORPG

넷마블게임즈의 대형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이 14일 0시를 기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공식 출시된다. 이 게임은 애초 10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이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레볼루션은 엔씨소프트의 인기 지적재산권(IP) ‘리니지2’를 활용한 모바일게임으로 출시 전부터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사전예약자 수는 340만명을 돌파했고, 서버 선점 이벤트는 꾸준한 이용자 유입으로 기존 50대에서 100대로 늘어났다. 출시 당일에는 100개 서버를 모두 동시 오픈한다.

한편 이 게임은 철저하게 세계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졌다.

지난 8월 열린 게임 설명회에서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이사는 “레볼루션은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만들었다”며 “내년 중국, 일본 순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은 중화권 최대 IT기업 텐센트가 배급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레볼루션은 모바일 게임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MMORPG 장르에 도전해 관심을 모았다. 수광



은 이용자가 동시 접속해 대결을 펼치는 MMORPG는 모바일에서는 디바이스 한계와 낮은 사용성으로 각광받지 못했다.

넷마블게임즈는 레볼루션이 PC 온라인 게임 특유의 MMORPG 사용자 경험을 모바일에 고스란히 구현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타격감, 집단 대결 시스템, 다양한 전장 등이 그 사례다.

특히 공성전(攻城戰) 기능은 한 서버에서 최대 1600명이 동시 전투하는 방대한 스케일로 눈길을 끈다. /뉴시스

미소금융·햇살론 등 정책자금 7조로 확대

67만명 지원... 중기 지원도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이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소기업 금융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서민 자금지원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액은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약 67만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중금리 대출 관련해서는 현재 1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 보증한도가 소진되면 1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완료하신 분에 대한 중금리 상품 공급 등도 강구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은행은 총 59억원을 공급한다. /뉴시스

창업·성장기업에 연 18조원 이상을 풀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최소 3조원 이상 늘어난 66조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에 26조원 이상, 인공기능·미래신성장산업에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또 내년 기술금융 공급액을 당초 계획인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가 금융시장의 불안과 기업·경제활동의 위기로 확대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우선 과제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관을 아우르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